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eas.or.kr) / 주소 (041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한신빌딩) 1615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발행인 반상진 / 편집인 박선형 / 편집팀 이승호, 채윤정, 정희종 / E-mail keas1967@daum.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제48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운영 방향

박 남 기 | 광주교대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8대 한국교육행정학회를 맡아 심부름하게 된 회장 박남기입니다. 저희 학회는 앞서간 회원님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2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제48대 학회는 한국교육행정학 구축과 위상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계승·발전하고, 한국교육행정학을 꽃피우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아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분과위원장님들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도이니, 분과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침착한 후 위원회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해주시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학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각 분과 위원회의 활동을 학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장님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뜻에서 각 위원장님들의 이름을 명기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 구현될 수도 있으나 학회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상세히 열거하였습니다. 회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 임하겠습니다.

1.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학문적 위상 제고

2020년 학회 운영 최고의 목적은 튼튼하게 다져진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께서 힘을 모아 다음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술대회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학문적 위상의 척도가 될 학술대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학술대회 계획 수립은 학술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를 주축으로 관련 위원회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선형 동국대 교수), 국제학술위원회(위원장: 정동욱 서울대 교수), 학술편찬위원회(위원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박대권 명지대 교수), 포럼운영위원회(위원장: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연구방법론연구위원회(위원장: 변기용 고려대 교수), 신진학자위원회(위원장: 엄문영 서울대 교수), 원로학자위원회(위원장: 강인수 수원대 전부총장), 현장연계위원회(위원장: 김희규 신라대 교수), 교육행정가위원회(위원장: 오찬숙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과장), 미래분과위원회(위원장: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된 주제에 따라 발제자를 미리 선정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국교육행정학의 위상을 인정받는 연구 발표가 되게 하겠습니다. 연차학술대회 발표주제와 한국교육행정학연구 차기년도 제1호의 특별주제를 연결시켜 발표 논문이 차기년도 1호의 특별주제란에 실릴 수 있는 길도 모색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술 대회 자료집을 사전에 탑재하여 참가자들이 읽고 질문도 올릴 수 있는 길도 찾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발표는 15분으로 줄이고 플로어 토론을 늘림으로써 학회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구체적인 학술대회 계획에는 이하 학회 운영 방향과 각 위원회 활동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연관 학회 및 타 학문분야 학회와의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교육행정학회, 교원교육학회, 교육정치학회, 교육재정학회, 교육법학회 등 유관학회가 제1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 연합학술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 유관학회들의 학회운영 효율화를 기하고, 연합학술대회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학을 넘어선 행정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건축학, 공학, AI 학과 등 타 학문 분야와의 범학문적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이슈 중에는 타 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접근을 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회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할 때에도 타 학문분야의 선도적 학자를 모색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융복합 학문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연구위원회 주도로 뜨거운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학술대회, 포럼, 심포지움 등의 주제로 다룸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그리고 정책연구 수주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것입니다.

넷째, 기획홍보위원회(위원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가 주관하고 있는 학회 소식지를 통해 학술 찬반 논쟁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47대 교육행정학회 마지막 이사회에서는 교육 형평성과 수월성, 기회균등과 선택의 자유 등 교육행정학의 상충된 가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타 학회가 하듯이 학회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논쟁이 차원 높게 이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이외에도 기획홍보위원회는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등의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세상과 널리 공유함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토대 강화를 위해 연구방법론연구위원회(위원장: 변기용 고려대 교수)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교육행정학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탐색하며 학회 구성원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학술지의 내용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술지에는 논문 심사에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이론을 펼치고자 하는 학자들의 논문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아예 투고 자체를 포

기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교육행정학이론 발전이 더더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격렬한 토론을 거친 후 그 가치를 판단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학술지에는 소식지에 이어졌던 학술 논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출판한 책을 소개하는 코너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2. 학회의 활동력 제고

학회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이제는 외연을 확대하여 학회 활동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행정가 및 교육행정가, 그리고 교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학회가 행정 및 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행정 현장과의 연계가 활발하지 않았습니.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교육행정가위원회(위원장: 오찬숙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과장), 현장연계위원회(위원장: 김희규 신라대 교수)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행정가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김원찬 부교육감과 광주광역시 오승현 부교감 등도 위원으로 활동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연계위원회는 신라대 김희규 위원장께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동 위원회는 교육행정가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위원회들은 학술대회를 계획할 때 주제 선정을 비롯한 운영 방향 설정에도 참여하고, 일반 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추천하며, 분과위원회 별로 별도의 세션을 만들어 행정가 및 교원,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과에서는 교육행정가와 교원들 중에서 박사학위소지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교육지방자치 대비 교육행정가 양성 시스템 공동 마련 가능성 등을 탐색하며 학회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상의 몇 가지 노력만으로 행정가와 교원들의 학회 참여가 갑자기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행정학회가 한국교육행정 현장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한국교육행정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현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연계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신설 분과위원장님들의 노력이 밑거름 되어 학계와 현장 연계 문화가 차츰 뿌리를 내리다 보면 현장과 함께하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학문후속세대의 학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진학자(Young Scholar)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진학자위원회는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가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 학문 네트워크를 강화해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수고해주실 위원장으로는 국내에서 교육행정학 분야로 가장 많은 박사를 배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엄문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신진학자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교육행정학 쪽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 학술대회 때마다 학위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발표 기회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학회의 선배들 앞에서 학문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정식 데뷔를 하고, 학회가 이분들의 학문 세계 입문을 축하하는 축하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회가 전국 박사과정 학생만이 아니라 석사과정 학생들의 공동 논문 지도의 장, 혹은 학문후속세대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규모가 작아 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에 교육행정학 교수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학생들의 관심 영역은 다양하

로 학문 후속세대들이 자신들의 학위 논문 주제만이 아니라 관심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 완성 전인 논문 계획단계나 중간 단계에서부터 간략히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별로 관련 분야 전공 연구자들이 세션 좌장을 맡아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가진다면 학문 후속세대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각 대학 교수님들께서 석·박사 논문 진행 과정에 학회에서의 발표를 권장하신다면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학회는 기성 학자들의 발표를 듣는 공간이자 신진학자나 학문후속세대들이 자신의 생각을 선후배 학자들과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학회 참가자들이 발표, 토론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학회 참여의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는 한국교육행정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 위원회는 전국 대학에서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연구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주제별 학문후속세대 디지털 네트워크도 형성·활성화시키길 기대합니다.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되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 분야 교수나 연구원들을 멘토로 지정해줄 경우 학문후속세대들과 기존 학회와의 유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원로 학자분들의 지속적인 학회활동을 지원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아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의 강제 퇴직제도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퇴임하는 원로 학자들은 연구력도 왕성하고 연구 의지도 강하십니다. 그런데 정년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후에는 학계에서마저 스스로 몰려나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업적과 지혜가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학계의 급격한 세대교체가 진행될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퇴직하신 원로학자들과서 지속적으로 후학들과 교류하면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원로학자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강인수 수원대 전부총장님께서, 부위원장은 임연기 공주대 명예교수님께서 맡아 수고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주도하에 원로교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회를 중심으로 학술활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학회가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학술회의나 포럼 때 발표자 및 토론자 추천, 필요시 원로학자 세션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회의 국제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케이팝, 케이드라마에 이어 영화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분야는 아직도 외국 이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앞장서서 한국교육행정학이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학술위원회(위원장: 정동욱 서울대 교수), 학술편찬위원회(위원장: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영문편집위원회(이길재 충북대 교수)가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국제학술위원회는 일본과의 국제학술회의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교육행정학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학술편찬위원회에서는 미국 피츠버그대 와이드만 교수와 함께 2000년에 출판된 「Higher Education In Korea(2000, Falmer Press)」 책 완전개정판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고등교육을 세계 학자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국내 교육행정학 분야 저술 중에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책을 찾아 번역·소개하는 작업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국제 위상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영문학술지 발행 작업은 계획한지는 오래 되었으나 아직 한 번도 발행을 하

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향후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문편집위원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문편집위원회 주도로 한국 출신의 해외 교육행정학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 전공 학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논문 영문 번역 지원을 통한 한국교육행정학 영문 논문집 출판 가능성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교육행정학회 논문 국제인용지수 증진 방안도 탐색해 보겠습니다.

3. 학회 발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학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학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확보, 학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회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학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용 교원대학교수)가 다른 위원회 및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속에서 이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미래분과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행정학회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과 산업 그리고 정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행정학회와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학회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회장인 저를 주축으로 하여 기획홍보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재정기금위원회(위원장: 신재흡 한성대 교수), 정책연구위원회, 포럼운영위원회, 현장연계위원회, 교육행정기위원회, 미래분과위원회 등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법인이 되어 학회 차원의 연구비 수주가 가능하므로 학회 차원에서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부회장선출위원회(위원장: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는 부회장 선출에 온라인 투표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차기 회장 선출이 회원들에게 학문 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차기 회장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겠습니다.

넷째, 조직규정위원회는 부회장(고전 제주대 교수)의 자문을 받으며 법인이사회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필요한 제반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반 규정을 정비해왔으나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미래를 위해 이번 기회에 제반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4. 나오며

시작하며 밝힌 것처럼 위의 내용은 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토대로 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제시하는 안은 구현이 되도록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학회 살림을 꾸려갈 부회장님, 사무국장님(임수진 광주여대 교수), 총무간사님(구성우 영남대 연구교수), 총무부간사님(권혁기, 영남대 대학원), 편집간사님(황은희 경주대 연구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학회가 꾸려져가고 있으므로 학회 차원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애를 쓰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말에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글을 다시 읽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후회 없는 2020년이 되도록 학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봉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시론 |



고교학점제는 학교의 ‘문법(grammar)’ 을 바꿀 수 있을까

박수정 | 충남대학교

고교학점제가 현 정부의 주요 학교정책으로 등장한 후, 엄청난 관심과 정책적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자유학기제(현재 자유학년제), 현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학교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개혁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틀 - ‘문법(grammar)’ (Tyack, D. & Cuban, L., 1995) - 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통해 만난 학교 현장의 변화와 어려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라고 교육부(2017)에서는 밝히고 있다.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의 활성화가 전자에 해당되며, 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 2, 3학년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고, 올해 2학년년부터 그러한 경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필자는 최근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정책연구(박수정 외, 2019)를 하면서, 학교 현장을 좀더 알기 위하여 연구·선도학교 컨설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학교들은 많은 깨달음과 문제들을 제기해주었다.

세종의 A학교는 학생들에게 ‘완전한 선택권’ 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따라, 2학년에 공통된 ‘학급 시간표’ 가 아닌 ‘학생 개인 시간표’ 로 운영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너무 많은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닌가’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다. 이 학교는 정기고사(과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간표 편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고민이다. 학생마다 선택 과목이 다르고 과목 수가 많다보니, 종래의 고사 운영 방식(하루 3교시 시험, 동일한 공강과 자습시간, 3~5일간 운영)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 학교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 교장(공모)이 작년부터 추진한 ‘교과별 교무조직’ 이다. 행정 업무 지원 부서를 통합하여 별도로 두고, 교과 중심 협의를 위해 부서를 교과별로 조직하였다. 처음 시작한 작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으나, 올해부터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 교과별 교무조직이 만능의 열쇠는 아니나, 교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구성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행정과 교과에 동시에 소속시키는 업무분장 조직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충북의 B학교는 군내 유일한 일반고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많다. 인근 고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도 어렵고, 강사 초빙도 쉽지 않다. 올해는 학교의 교원 범위에서 과목 편성이 되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 학교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생들의 적극적 활용’이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동아리별 수학여행’과 같이, 수년 전부터 학생 동아리, 자치 활동의 활성화로 유명해졌고, 90% 이상의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활발한 동아리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1학년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위해 교육 동아리 학생들에게 진로 계열별 교육과정을 공부시키고, 이들을 학생들의 교육과정 상담자로 활용하고 있다. 1학기 기말고사 후 일주일간 교과 설명회를 열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 마스터 인증제를 만들어, 일정한 과목과 활동 참여를 통해 해당 계열의 교육과정 마스터로 생기부에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에서 논문 쓰기를 활발하게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이를 정규 수업으로 끌어들이(과제탐구)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학교의 변화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일 수 있다. 어떤 교육환경의 변화와 압력이 몰려와도 ‘좋은 대학을 보내야’라는 말 한마디로 고등학교의 강고한 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까지도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수업에서조차 불필요한 ‘강제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후배들은 ‘야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의미 없는 야간자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우수 학생들을 집중 육성하는 소위 ‘특별반’의 운영도 오랫동안 묵과되어 왔다. 단, 지역에 따라 교육정책이 다르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남아있는 일일 수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각일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대입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사는 학교와 교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다. 최근 정시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고교학점제와는 배치된다는 반응이 높다.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을 선택하게 하고, 자습실을 꾸민다는 학교도 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의 관계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는 아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움직인다기 보다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대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교사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필자는 몇 년 전에 ‘학교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박수정 외, 2016)’라는 논문에서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변화를 연구한 적이 있다. 이 학교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모교장으로 근무한 훌륭한 교장선생님에게 탄복하여 시작한 연구였다. 교장이 바뀐 후 학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바로 충북의 B학교였다! 현재 농촌지역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떠오르는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니, 학교 변화의 씨앗은 교장과 교사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학교는 5년 전에 뿌려진 씨앗, 즉 학생 동아리, 자치 활동, 학생 논문 쓰기 활동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현재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과제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나름의 노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학교의 변화 요인으로, 학교장의 리더십, 그리고 교사에게 ‘의미감과 보람이 있는 일’, ‘학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한 바 있다(박수정 외, 2016). 이 학교가 현재 고교학점제 학교로서 완성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러가지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이 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송경오, 2015), 학교는 ‘우리 학교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면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역량(competency)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역량(capability)에도 더욱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업무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일로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전문적 교사 협력’을 통해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실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문화와 학교운영시스템, 학교장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교육행정 연구자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정책이며, 교육과정과 평가가 가장 중심이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교육과정과 평가 외에도 학교문화와 학교운영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교장의 리더십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교조직의 차원에서 교육행정 연구자의 기여가 매우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교문서인 ‘교육과정 편성표’를 읽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이다. 필자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었고, 고등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을 최근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난수표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고등학교의 개설 가능 과목 수가 몇 개인지 아는가? 시·도교육청의 인정과목까지 합치면 2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중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심과 학습, 그리고 현장의 교원들을 통해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다. 다행스러운 일은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하면 교육과정 전문가와 팀을 이룬다는 점이다. 학교의 변화에서 ‘교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Fullan, 2015)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행정 연구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는 점점 크게 요구될 것이다.

현장의 교원들 중에 교육과정 전문가는 많으나, 학교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 연구자의 역할이다. 고 2부터 학생 선택 교육과정이 운영되므로 기존의 학급과 담임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교사 담임제(academic advisor)’를 시범 도입할 계획인데, 기존의 학급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을 모든 교사들이 맡아 학습 상담을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의 과목을 더 심화하여 가르치는 것과, 다른 교과와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며, 교과

연계 진로지도가 필요하므로, 교사의 전문성과 필요한 역량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또한 ‘진로·학업설계지도’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있는데,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학생들의 학업 설계를 전문적으로 상담, 지도하는 역할이 모든 교사(특히 1학년 교사)에게 요구된다. 다과목 다교과 지도에 따른 ‘수업시수’의 개념과 기준 변화(기존의 업무경감 연구와 또 다른 관점)의 필요성, 행정학급과 실제 수업운영학급 수의 차이 발생에 따른 ‘학급 수’,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교원 수’에 대해서도 종래와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책 차원에서도 교·강사의 수급과 지도 역량이 중요하게 부상하는 바, 교원의 인사행정, 교원 연수,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교원 양성과 자격, 임용 등 관련되는 이슈들 또한 중요하게 연구될만한 것들이다. 다과목, 새로운 수요의 과목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부전공 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금, 현재의 자격제도 틀에서는 좀처럼 작동하기 어렵다. 반드시 고교학점제 때문 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교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교육의 미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교학점제는 결코 고등학교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열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학교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현장에 이슈를 제기하거나 중요한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교육행정 연구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고등학교’의 위상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등학교는 ‘대입을 위해 거처가는 정거장’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경험을 하게 하는, 더 큰 미래와 연결되는 곳인가?

참고문헌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2017. 11. 27).
- 박수정, 맹재숙, Chen Peng, 박선주(2016). 학교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농촌 지역 일반고의 학교변화 과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163-183.
- 박수정, 박상완, 김정현, 이상은, 조진형(2019).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교·강사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송경오(2015).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의미와 중요성. *교육행정학연구*, 33(4), 147-174.
- Michael Fullan(2015).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fifth edi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yack, D. & Cuban, L. (1995). *Tinkering toward Utopia: A Century of Public School Reform is a history of American public school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 2019년 학회주요소식 •

1. 제47대 사무국 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www.keas.or.kr E-mail: keas1967@daum.net	
학회	주소	(041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1615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전화번호 02-572-4696
회장	성명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전화번호 043-530-9114
			E-mail sjban@kedi.re.kr
사무국장	성명	총무간사: 채윤정(동국대학교)	전화번호 043-530-9374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	E-mail shlee97@kedi.re.kr
간사	성명	총무부간사: 정희중(전북대학교) -업무: 학회 및 학술 대회 총괄	전화번호 010-9189-2837
			E-mail keas1967@daum.net
		총무부간사: 정희중(전북대학교)	전화번호 010-8802-5526
		-업무: 회원 및 회비납부관리	E-mail keas1967@daum.net
	편집간사: 안희진(경희대학교)	전화번호 010-3727-2826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E-mail keas1967@nate.com	

2. 제48대 부회장선거결과

2019년도 제48대 부회장 선거 결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전교수님께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48대 부회장
교전(제주대학교 교육대학)

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구수탁기관 수행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우리 학회가 연구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등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앞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연구 관리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등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회원님들의 원활한 연구진행을 돕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과제위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년 9월 30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납입하신 회비와 발전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해졌으니 앞으로 학회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 회칙 및 규정 변경사항 안내

■ 편집위원장 임기 2년으로 변경

- 학술지평가에서 편집위원장의 안정성을 강조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권유하여 2년으로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변경하였습니다.

■ 논문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

- 발간규정 제11조(학회의 저작권 보유)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저작물 복제 전송권이 학회에 귀속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 사항 강화

-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준수 확인서', '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5. 학회행사소식

2019년도 연차학술대회 개최

- 가. 일 시: 12월 7일(토) 09:30-18:00
- 나. 장 소: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 다. 주 제: "지역 변동과 교육행정의 과제"

제 11회 소식논문상 시상

2019년 제11회 소식논문상은 박상완교수의 "신뢰의 개념구조 및 교육행정 연구에의 적용"이며, 교육행정학연구 35권 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제 2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시상

2019년 제 2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의 수상자는 서정화 사단법인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께서 수상하였습니다.



6. 2019 학회 활동 보고

학술대회 개최

- ▶ 춘계학술대회(2019.05.18.):한국교육행정학회 · 대학교육법학회 · 한국교원교육학회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연합학술대회 및 한국교육행정학회 · 일본교육행정학회 공동주최 국제 심포지움
- ▶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학회(2019.06.28.~29.):한국사회에서의민주주의,포용, 그리고 교육
- ▶ 연차학술대회(2019.12.07.):지역 변동과 교육행정의 과제

교육정책포럼 개최

- ▶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분야 성과진단 포럼(2019.05.18.)
- ▶ 제141차 KEDI 교육정책포럼(2019.10.02.)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

- ▶ 학술대회 지원사업 선정
 - 지원기간: 2019.05.01.~2020.04.30.
 - 지원금액: 7,300,000원
- ▶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
 - 지원기간: 2019.10.01.~2020.09.30.
 - 지원금액: 8,250,000원

학회 규정 정비

- ▶ 편집위원장 임기 2년으로 변경

- ▶ 논문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
- ▶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 사항 강화

연회비 일시납 감면 혜택

학회 운영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통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회비 납부의 연속성 확보와 개인회원에 대한 납부 혜택을 드리고자 올해부터 연회비 5만원에 대해 선납 할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선납 연회비는 올해 예산에 각 4만원, 4만 5천원씩 반영하고 연회비 이월 계정을 따로 만들어 내년 및 이후 연도에 각각 배정하여 미래의 회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21명의 회원분들이 본 제도를 이용해주셨습니다. 학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에 대한 혜택을 넓힐 수 있도록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드립니다.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구분 및 납입기간		회비납부액	감면사항	비고
정회원	1개년도	50,000원	해당없음	신규회원의 경우 입회비 1만원 별도
	3개년도	135,000원	15,000원 감면 (10%에 해당)	
	5개년도	200,000원	50,000원 감면 (20%에 해당)	
학생회원(석사재학생)		30,000원	해당없음	
기관회원		100,000원		

연회비 납부 회원 혜택

연회비를 충실히 납부해주신 회원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학회 등재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및 포럼 자료,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발간 즉시 pdf 파일 이메일 송부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회비 납부 회원에 대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고안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 등록비 조기할인 도입

올 한해 있었던 모든 학술대회에 대하여 학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미리 등록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조기등록 할인을 시행하였으며, 학회원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본 제도를 활용하며 학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7. 학회 연구수탁기관 역할 수행 안내

현재 각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등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앞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연구 관리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등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회원님들의 원활한 연구진행을 돕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과제위탁을 부탁드립니다.

8.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회원님들께서 납입하신 회비와 발전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해졌으니 앞으로 학회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9. 2019년 회비납부 명단

1) 2018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5명)

김경희, 김동석, 박영숙, 박해경, 신철균

2) 2018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16명)

고전, 김재용, 박남기, 박선행, 서재영, 양성관, 염민호, 유동훈, 이광현, 이석열, 이수정, 이정로, 이희숙, 정제영, 채정관, 최창섭

3) 2019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4명)

김규태, 김용련, 문희원, 박영숙

4) 2019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16명)

고득환, 김갑성, 김병주, 김병찬, 김양선, 김용, 김현숙, 박상현, 신정철, 오범호, 이인희, 이정미, 정수현, 조경식, 주영효, 채현우

5) 2019년 신입회원 회비납부자 명단(95명)

강창호, 고수주, 고유주, 고은선, 권순범, 김경희, 김도영, 김도한, 김동현, 김보름, 김부경, 김빛나, 김상규, 김성천, 김수미, 김시은, 김옥결, 김연구, 김진영, 김진희, 김영룡, 김옥자, 김수진, 김영선, 김창현, 김한경, 김한나, 김현철, 김효정, 나은선, 모영민, 박은주, 박소영, 박수연, 박수영, 박승희, 박영림, 박재은, 박태인, 부성필, 서지현, 성유저, 손규태, 손다정, 송인영, 신재영, 신혜원, 김동철, 심우정, 안혜정, 양수진, 양운정, 양정숙, 오은석, 오희정, 왕정원, 유변성, 윤혜원, 이가혜, 이광희, 이미영, 이미희, 이재원, 이정우, 이종원, 이정연, 이지영, 이상호, 이영선, 이은비, 이은주, 이일화, 이정민, 이평구, 이한나, 이해니, 임명희, 임후남, 장선희, 장미선, 장연호, 장혜원, 정분기, 정세환, 전석진, 전수경, 조연희, 조은정, 조희옥, 차지철, 채윤정, 최상훈, 최선, 허주, 홍미영, GONG XIN, XIE YUI, YAN XICHEN

6) 2019년 기존회원 회비납부자 명단(230명)

강기남, 장인수, 강은숙, 강지영, 강호수, 고장완, 곽주철, 곽은주, 권은경, 권초아, 권희정, 김덕희, 김도기, 김민규, 김민조, 김민희, 김병찬, 김성열, 김세정, 김세영, 김솔, 김순남, 김승희, 김명신, 김유원, 김영식, 김영식, 김이경, 김익형, 김은수, 김정원, 김정탁, 김정현, 김정희, 김제현, 김종규,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지하, 김진원, 김정아, 김희규, 김현숙, 김혜진, 김효진, 길혜지, 나윤진, 남인혜 노지영, 류명혜, 문보은, 문보경, 문찬주, 박선화, 백정하, 박소영, 박수미, 박혜연, 박경호, 박동현, 박상완, 박상현, 박성수, 박세진, 박삼철, 박수정, 박영상, 박유미, 박유민, 박종필, 박태규, 박철웅, 박효원, 박희진, 배상훈, 백규호, 손성욱, 송승익, 신재흠, 신인숙, 신하균, 신현석, 신혜진, 심용섭, 안영은, 양민석, 양찬주, 엄문영, 오수정, 오순영, 오예진, 우원재, 우명숙, 위은주, 유경훈, 유길한, 유평수, 유현숙, 윤기현, 윤정인, 윤소희, 윤홍주, 이기석, 이동엽, 이덕난, 이병식, 이상규, 이상철, 이쌍철, 이수진, 이승연, 이승일, 이영선, 이영은, 이영희, 이인서, 이인수, 이자형, 이정화, 이재덕, 이정기, 이정진, 이주희, 이필남, 이창수, 이창열, 이치호, 이해직, 이형빈, 이혜나, 이호준, 이희수, 임수영, 임종현, 임현정, 임희진, 장귀덕, 장다습, 장덕호, 장수연, 장혜원, 전제상, 정대범, 정동욱, 정묘진, 정재안, 정재균, 정설미, 정수연, 정유리, 정은경, 전수빈, 정혜림, 전재은, 조경식, 조규승, 조미애, 조석훈, 조성영, 조성범, 조영하, 조옥경, 조은원, 주영달, 주현준, 채송화, 천세영, 최재원, 최준렬, 최지원, 최원석, 하봉운, 하상고, 한송이, 한유경, 한신희, 함승환, 함은혜, 홍성완, 홍지오, 황재운, 황준성, 황윤환, 황은희

7) 2019년 이사회부 납부자 명단(25명)

고장완, 고전, 김갑성, 김민희, 김병찬, 김용, 김정희, 나민주, 박경호, 박남기, 박선형, 박영숙, 박종필, 신정철, 염민호, 오범호, 유길한, 윤정일, 윤홍주, 이석열, 이정기, 정대범, 정수현, 정재균, 조영하

8) 2019년 기관회비 납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국회도서관, 남서울도서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주교육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종 부 간사, 010-8802-5526, keas1967@daum.net)

10. 제47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반상진(KEDI)
- 부회장: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 감 사: 엄문영(서울대학교), 오범호(서울교육대학교)

■ 이사회

- 당연직 이사 33명

김영식, 신극범, 김재범, 신철순,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 선임직 이사 60명

고 전(제주대), 고장완(성균관대), 김 용(청주교대),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달호(동아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찬(경희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이경(중앙대), 김재웅(서강대), 김정희(대교협), 김홍주(세명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경호(KEDI), 박균열(KEDI), 박삼철(단국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영숙(KEDI),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호(한양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성병창(부산교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재흡(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염민호(전남대), 오범호(서울교대), 유길한(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이길재(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병환(순천대), 이석열(남서울대), 이수정(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이필남(홍익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대범(진주보건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정재균(전북교육청), 조영하(경희대), 차성현(전남대), 천세영(충남대), 최정윤(KEDI), 최준렬(공주대), 최창섭(강릉원주대), 하봉운(경기대), 홍창남(부산대)

■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홍보 위원회	박선형(동국대)	백정하(대교협)	김규대(계명대), 박균열(KEDI), 박삼철(단국대), 변수연(부산외대), 조영하(경희대), 함승환(한양대)
학술위원회	김용(청주교대)	박수정(충남대)	이광현(부산교대), 박희진(KEDI), 이필남(홍익대), 이정기(백석대), 이수정(단국대), 정재균(전북교육청)
편집위원회	김병찬(경희대)	송경오(조선대)	김왕준(경인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인심(서울여대), 신철균(강원대), 유경훈(KEDI), 이석열(남서울대), 이정미(충북대), 정바울(서울교대), 주영호(경상대)
영문편집 위원회	이길재(충북대)	김용련(한국외대)	강호수(경기도교육연구원), 김영식(경남대), 엄문영(서울대), 정성수(대구교대), 차지철(한국지방교육연구소), 최원석(KEDI)
국제학술 위원회	최정윤(KEDI)	김혜진(KEDI)	김선주(강남대), 신혜진(MUREPA), 전재은(한국외대), 채재은(가천대)
학회발전 위원회	윤홍주(춘천교대)	오범호(서울교대)	권순형(KEDI), 이선호(KEDI), 이재택(KEDI), 차성현(전남대)
조직규정 위원회	신철균(강원대)	이덕난 (국회인법조사관)	김성천(한국교원대), 김현진(국민대), 이동엽(KEDI), 이호준(KEDI)
재정기금 위원회	하봉운(경기대)	박상욱(동의대)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김민희(대구교대), 박경호(KEDI), 장덕호(상명대)
학술편찬 위원회	김달효(동아대)	채재은(가천대)	강낙원(대학교육협의회), 이상철(부산시교육정책연구소), 이쌍철(KEDI), 이호섭(숙명여대)
윤리위원회	신정철(서울대)	이병식(연세대)	고장완(성균관대), 김도기(한국교원대), 박주호(한양대), 이필남(홍익대), 조석훈(가천대)
정책연구 위원회	성병찬(부산교대)	홍창남(부산대)	김순남(신한대), 김희규(신라대), 이병환(순천대), 이상철(부산시교육정책연구소), 이쌍철(KEDI), 이일권(한국외대)
포럼운영 위원회	염민호(전남대)	박소영(숙명여대)	강석(전남대), 김훈호(공주대), 장효훈(세종시보람중), 정동욱(서울대), 주현준(대구교대), 최나리(위덕대)
부회장선출 위원회	양성관(건국대)	박종필(전주교대)	유동훈(하나고), 이광현(부산교대), 이석열(남서울대), 정바울(서울교대)
소석논문상 위원회	강영삼(전 국민대)	주삼환(전 충남대)	강무섭(전 강남대), 강인수(전 수원대), 김혜숙(연세대), 노종희(전 한양대), 서정화(홍익대), 신중식(전 국민대), 이종재(전 서울대)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위원회	정영수(충북대)	김성열(경남대)	김병윤(대전교육청), 김용남(KEDI), 신봉섭(나사렛대), 신현석(고려대), 이명주(공주교대), 이선호(KEDI), 주철안(부산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